

불교 사회복지 저조

문화부 조사 '종교계 사회복지 현주소'

'깨달음 사회화' 이후 복지불사 관심늘어 복지관 운영 '우세'...여성·아동·장애인 등 '열세'

'종합복지'는 최고, '실직자복지'는 양호, 보육 및 아동·청소년복지는 초보, 여성복지는 전무(全無).

문화부 사회복지현황의 현주소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조사·집계한 <종교계의 사회복지현황>에 따르면 국내 종교계가 설립·운영하는 사회복지단체는 모두 1천1백46곳. 이는 정부가 처음 공식 집계하는 것으로,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종교계의 사회복지현황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황에 따르면 종합복지관은 불교가 33곳으로 가장 많으며,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가 14곳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는 3년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발족한 이래 조직적인 종합복지관 수탁사업의 성과로 보인다. 타 종교계가 개별적으로 복지관 위탁경영에 나선 반면 조계종은 종단차원에서 결집된 힘을 모아 수탁에 나선으로써 관할기관에 신뢰성을 심어준 것이 주요한 전략이었다.

이와 함께 IMF사태 이후 급성장한 분야는 실직자 프로그램이다. 불교는 70곳으로서 개신교 1백5곳, 천주교 79곳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문제에 발빠른 대응을 계속해 온 '관성의 법칙'에 힘입은 성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런 성과와는 달리 보

육·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보육·아동시설은 개신교가 1백19곳, 천주교가 18곳, 불교가 12곳, 원불교가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천주교 34곳, 개신교 19곳, 불교 5곳에 달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은 개신교가 22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천주교 9곳, 원불교 6곳, 불교 5곳으로 나타났다.

기독교계가 새삼 기독교인들을 집중 양성한 것과는 달리 불교계는 미래의 복지들을 타종교 기관의 아동·청소년시설에

'올며 겨자 먹기'로 보냄으로써 불교신자의 노후화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기독교계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장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장애인복지도 아직 성장 단계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천주교가 1백11곳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불교와 개신교가 각각 23곳이었다. 숫자적으로는 아직 부족하지만 승가원이 청정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을 성공시킬 경우 한국 최대의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탄생시키게 되는 등 어느때 보다 전망이 밝다.

노인복지시설은 양정을 다지고 있는 분야다. 천주교가 68곳, 개신교가 39곳, 불교가 35곳, 원불교가 14곳이다. 노령의 복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불교 노인복지를 이끌고 있는 연꽃마을처럼 다양한 유형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점이다.

최악의 복지분야는 타종교와 마찬가지로 여성복지로 나타났다. 개신교가 21곳, 천주교 17곳, 불교 1곳(한국불교교회원 무료직업소개소) 등이 전부다. 관계자들이 따르면 전무하다는 것이 올바른 지적이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종교계 복지시설이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임에 틀림없다.

한편 종교계 사회복지단체중 사회운동단체는 총 3백20곳으로 유교의 향교가 절대다수인 2백34곳이며 나머지는 개신교가 운영하는 단체가 38곳, 불교가 26곳, 천주교가 12곳, 원불교가 10곳으로 나타났다. 사회운동단체의 주요사업은 △의식·생활개혁 △환경·생활보호 △사회봉사 등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종교계 사회복지단체 현황

구분	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사회운동단체	320	26	38	12	10
사회복지	156	35	39	68	14
노인복지	151	12	119	18	2
여성복지	40	1	21	17	1
장애인복지	157	23	23	111	
청소년	58	5	19	34	
종합복지	75	33	14	14	14
기타	147	21	25	99	2
청소년수련시설	42	5	22	9	6
총계	1,146	161	320	382	49

우리국민은 미리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보다 갈때까지 가셔야 무슨 운동이다 캠페인이다 떠들면서 대책을 마련한다.

장모제도만 해도 그렇다. 묘지의 국토장식을 뻔히 알면서도, 뜻있는 이들이 수시로 화장제도를 거론해도 마이 동종으로 들어 넘겼다. 매년 여의도 면적 1.3배의 땅이 묘지화 되는 사실을 비합리적이고 말하더라도 선뜻 화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매장에 대한 뿌리깊은 관습과, 몸뚱이를 애지중지하다보니 죽은 육신에서도 애착을 떼지 못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장모제도 개선의 시절이 연이왔다. 故 최종현 SK회장의 화장을 계기로 화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종교계,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화장유연장 남기기 서약을 하고 범시민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도 '화장서약' 시민캠페인을 지원키로 했다.

화장유연은 역사속에서도 볼수 있다. 신라 30대 문무왕은 불교법식에 따라 화장한 뒤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서 왜구의 침입을 막았다고 했다. 경주 감포 알바다의 대왕암이 문무대왕 수중릉이다. 화장은 불교의 장묘문화다.

목어

화장문화

스님들은 부처님이 하셨듯 대비를 한다. 그래서 재가자들이 '화장서약'에 너무나 나설 줄 알았는데 망설이는 이들도 있고 부정적인 이들도 있다. 여기서 한국불교는 불교를 상징하는 화장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불교의 가르침으로 우리국민의 뿌리깊은 묘제선호의식을 바꾸겠다는 사명감을 갖자.

가톨릭사제들은 지난해 화장유서를 썼다. 기독교는 지난 7일 기독교 장례문화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장례문화혁신방법, 납골당설치, 임종예비교실, 기독교장례문화개발을 위한 10가지 아이디어, 장례설교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불교계는 '화장문화는 우리것'이라는 생각에 젖어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매장문화의 문제점을 일깨우고, 재가자들의 불교적 화장의식 통일작업도 해야한다.

화장하여 남은 뼈를 거두어 묻거나 가루를 내어 산이나 강에 뿌리는 화장의식은 1912년 일제시대에 제정된 '묘지화장에 관한 규칙'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합일이 많다. 서두르자. 할일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자동퇴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국난극복' 부산 정각사범회 이모저모

밀교수행 철야정진

○...밀교수행법으로 철야정진한 22일 일제식은 엄숙함과 간절함 그 자체였다. 밤9시부터 1시간동안 효강 법장원장 집공으로 올린 진호국가 불사는 '수호국계주' 진언인 "옴홍야호사"를 21번 외고난뒤 결인을 풀고 염주를 돌리며 진언을 외었다. 이어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국난극복불사는 총지화법원장의 집공으로 동참대중이 결인한채 '관세음보살육자대명왕' 진언인 "옴마니반메훔"을 열송했다. 이자리에 법회소식을 듣고 경주에서 왔다는 김태연보살(원효사신도)은 "옴 진언을 외우는 총지종의 진호국가인 점진은 특이한 수행체임이 됐다"고 말했다.

실업자 끌어안기 '발원'

○...법회는 한나라당부산회장 함중환의원이 동참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발원문을 낭독하면서 절정을 이루었다. "...정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자리를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 모두가 평등해질 것이며, 그 평등이 부처님께서 가르시는 비로자나불의 정답이고 불국토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2백만 실업자를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돕게 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백담사 시절 격려 '감사'

○...제1회 신홍사 대회에 이어 이번 제5차 대회에도 전두환 전대통령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 전대통령의 이번 부산방문은 6년 만에 처음이어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역신도들이 전 전대통령의 방문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과 관련 전대통령은 국난극복기원법회에서 기원사를 통해 "이번 부산방문은 백담사에 있을때 찾아오고 위로와 격려를 해준 부산불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함"이라고 일축했다. 전 전대통령은 23일 정각사 법회에 앞서 감로사(주지 혜홍)를 참배하고 이튿날인 24일 오전 범어사(주지 성오), 오후에는 통도사(주지 일파)를 찾아 방丈 월하스님을 예방했다. 이어 25일 삼광사 법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마쳤다.

6백여 청사초롱 등불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장인 부산 정각사를 중심으로한 동래구와 온천구 일대는 6백여개의 청사초롱 등불을 밝혀 지혜로 경제난국을 극복하자는 의지를 일깨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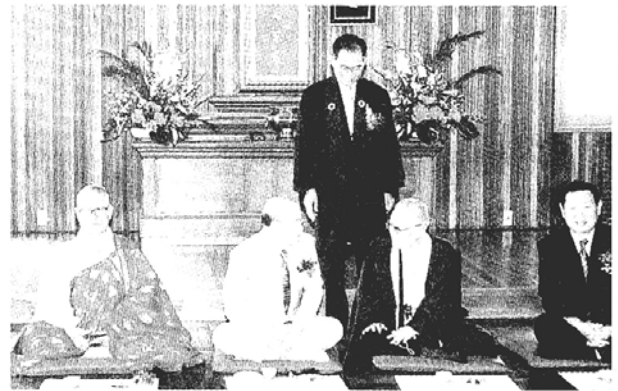
한편, 23일 오후2시 회향대법회에 앞서 약 1시간동안 정각사 일대 온천동 로터리에서부터 절입구까지 총지화법원장 동해중학교 학생들이 펼치는 길 닦음 사물놀이가 흥겹게 진행됐다. 법회 부대프로그램인 문화행사도 진행된 사물놀이는 지역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5백여 총지종 스님과 신도들이 진호국가 불사에 동참했다.



◇회향식에 각 종단대표·정계인사 등이 참석 국난극복을 발원하고 있다.



◇법회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특정 총지종 중령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인국 태고종 총무원장, 전 전대통령, 호강법장 원장, 특정 중령, 김원기 노사정위원장.



◇국난극복 염원에 한마음을 모은 각계 지도자들.



◇행사에 앞서 펼쳐진 길 닦이.

성일스님 10년
기도회향기념

"26년간 축적된 '포교 노하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성일스님 10년
기도회향기념

전법도량 시범사찰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장 성일 스님'의 생생한 포교현장 체험 자료집들



한 가지 행사를 잘 치루기 위하여 기획하고, 연구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장엄스럽고 상급하게 행사를 잘 회향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책들은 행사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과 환희심이 물결치게 해줄 좋은 포교 자료모음집입니다.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

신국판 336쪽 값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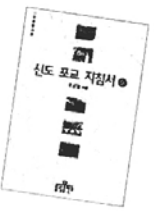
어린이 불교학교 실제 진행 방법, 어린이 불교 학교 자료집 등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들을 지도하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실행한 자료들을 총망라



신도포교지침서 상 - 연중행사편

신국판 406쪽 값 28,500원

일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연중 행사를 중심으로 행사 안내문에서부터 진행, 설법문안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수록



신도포교지침서 하 - 특별행사편

신국판 450쪽 값 29,500원

장엄한 건축물사, 범종불사, 기사불사, 수계불사, 결혼식, 성인수련대회 등 사찰 특별행사 진행에 대한 제반 내용들을 상세히 수록



청소년포교지침서 - 2권

청소년 포교의 효과적인 방안, 프로그램, 설법, 예화 등과 실제적인 운영방법 등을 상세하게 수록한 실질적인 청소년포교지침서

연대관음기도 영험력 기도는 될 때까지 하면 된다 - 2권

신홍사를 찾은 전국의 수천 수만의 불자들이 기도 수행 공덕으로 일군 불가사의한 영험들 모음집

대표전화 : 420 - 3200
팩시밀리 : 420 - 3400